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환경선교주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홍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X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32. 만유의 주재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수고한 순국선열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했던 가치들을 소중히 여
기게 하시고, 그들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의롭고 바른 나라를 이루
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환경선교주일을 맞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
로 주신 자연은 본래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는지요. 그러나 인간의 이기
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 파란 하늘은 먼지 가득한 하늘이 되었고, 생명이
넘치던 강물은 죽음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이 큼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돌보고 상생의 길을 열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사 60:20 인도자

▲ 교 독 문 113. 자연과 환경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대표기도 광권희 장로

2부응 답 송 찬양대

2부찬 양 442.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다 함께

▲ 성경봉독 창 1:26-31 I. 인도자
II. 이선화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독자
다 함께

2부찬 양 참 아름다워라 찬양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나 알 듯 하도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내 아버지의 그 솜씨 알 듯 하도다
 우리 주님의 세계

말 씀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항해자	환경부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
 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첫 모습을 잃어버린 세상을
 보며 한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십시오. 자연의
 회복을 위해 애쓰며 사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
 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주님의 마음 아픔을 헤아리게 하
 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연의 회복과 우리 자신의 회
 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참
 좋구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행복의 주인

한스는 칠 년 동안 부지런히 일한 대가로 큼지막한 금덩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커다란 금덩이는 그를 행복하게 했다. 그러나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무거운 금덩이는 그를 지치게 했다. 그는 금덩이가 귀찮아졌다. 마침 말을 탄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본 한스는 금덩어리를 말과 바꿨다. 한스는 만족했다. 그런데 악마가 말을 공격하자 놀란 말은 그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화가 난 한스는 곧 우유를 팔 수 있는 암소와 말을 바꿨다. 한스는 행복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가 행복을 느낀 것은 암소가 주는 우유 때문이었는데, 얼마 후 암소가 우유를 한 방울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암소가 싫어진 그는 암소를 돼지와 바꿨다. 얼마 후 돼지를 매와 바꿨고, 다시 매를 숫돌 두 개와 바꿨다. 유쾌하게 가위를 갈고 있는 사람이 매우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숫돌 두 개를 가진 한스는 다시 행복해졌다. ...

한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소유물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무엇을 얻었을 때 찾아오는 짧은 행복과 곧 그것으로 인해 맞이하게 될 짧지 않은 불행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

평범한 일상의 사랑과 행복을 추구한 시인 자크 프레베르는 이 문제를 잘 직시하는 시를 썼다.

금장 시계를 찬 불행 / 타야할 기차가 있는 불행 / 모든 것을 생각하는 불행 / (...) / 그리고 거의 '거의' 틀림없이 게임에서 이기는 불행이 있다. - 자크 프레베르, <거의>

시인은 금장 시계(금장 시계가 상징하는 화려하고 반짝이는 삶), 타

야 할 기차(기차가 드러내는 바쁘고 분주한 도시 생활), 이겨야 할 게임(게임이 가리키는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승부의 세계)이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그것들을 ‘불행’이라고 단정 짓는다. 행복처럼 보이는 것,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은연중에 행복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실은 불행이라는 것이다. 금장 시계, 기차, 이긴 게임, 그것들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있어서 불행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유를 통해, 또는 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인은 그런 행복은 속임수와 같다고 여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새를 나누어 주는 / 새 장수의 머리를 깎아 주는 / 이발사의 가위를 갈아 주는 / 칼 장수의 신발을 닦아 주는 / 신기로 장수가 / 가죽 구두를 수선하면서 /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주려고 / 저녁마다 가로등에 불을 켜는 / 가로등 밝힘이와 / 곧 결혼할 꽃 파는 어린 아가씨를 위해 / 커다란 침대를 만들어야 하는 / 목수를 위해 / 널빤지를 만들려고 / 저기 멀리서 나무를 하는 / 저 나무꾼은 / 얼마나 아름다운지.

- 자크 프레베르, <우리 장수의 노래>에서

시인이 가르쳐 주는 행복은 단순하다.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저녁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구두 수선공은 어떻게 구두를 수선하겠는가. 구두 수선공이 일을 하지 않으면 칼 장수의 신발은 누가 닦아주며, 칼 장수가 가위를 갈아 주지 않으면 이발사는 어떻게 새 장수의 머리를 깎아 주겠는가. 새 장수가 새를 나누어 주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즐거워지겠는가. 내가 내 자리에서 하는 내 일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하는 일이 되는 일상에 대한 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한 나무꾼의 단순한 일상인 나무하기에서 찾아내는 이 발견이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 이승우,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복있는사람) 중에서

■ 마음으로 읽는 글 ■

누나야

- 반칠환

누나야/ 다섯 살 어린 동생을 업고 마실갔다
땀 뻘뻘 흘리며 비탈길 산지기 오두막 찾아오던 참대처럼 야무진,
그러나 나와 더불어 산지기 딸인 누나야
국민학교 때
'코스모스 꽃잎에 톱날 박혀 있네
툽질하시던 아버지 모습 아련히 떠오르네'
동시를 지어 백일장에 장원한 누나야
나이팅게일이 되겠다고, 백의 천사가 되겠다고
간호대학에 간 누나야
졸업한 다음 시내 병원 다 뿌리치고 오지마을
무의촌 진료소장이 된 누나야
부임 첫날 다급한 소식 듣고 찾아간 곳 다름 아닌
냄새 나는 축사, 난산의 돼지 몸 푸는 날이었다고
다섯 마린지 여섯 마린지 돼지 새끼 받아내느라
혼났다던 스물두 살 누나야
못난 동생 시인 됐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머리 쓰다듬던 누나야
병든 엄마 병들었다고 누구보다 먼저 친정 달려와
링거병 꽃고 가는 양념팔 누나야
이제 곧 큰 길이 나고 사라진다는 고향마을 중고개에
아직도 나를 업고 가느라 깍지 낀 손에/ 파란 힘줄 돌는 누나야
세상의 모든 누나들을 따뜻한 별로 만든/ 나의 누나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김 린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혜경 강요한 원은이 광정자 국지연 권혁순 박혜경 경광일 김부용
 김금순 이김동영 강김림 김요한 김문주 김성필 자순김 영순 김김영 김용태 박정숙 김김근 김종성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주영 김필미 김성연 김김훈 김유경 김태순 김희진 김홍재 김광일 김종문
 김만균 문석규 박심해 이인웅 김주경 유이재 김박유윤 김순우 김희림 김희영 김미영 김정석 김백현
 서정순 설규범 이인웅 오송행 자문오 김조희 김재오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이우상 이계영 이영민 김조희 김재오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정진호 장양순 임정민 김조희 김재오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최옥자 최현 최형민 김조희 김재오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흥복선 무명1

감사헌금

권정이 김미향 김수경 김재흥 최희영 김정규 이종주 김준수 김중수 이순정
 김필순 문복순 박승은 김박진주 방경선 김방문 박혜전 박배삼 손속경 손경양 신혜정
 안성호 김희숙 양경해 이광재 이상도 이영민 최형서 추은총 하현일 김광우 김광우 김광우 김광우 김광우 김광우 김광우 김광우 김광우
 장승희 장원호 박성희 정영례 최영민 최형서 추은총 하현일 김광우 김광우 김광우 김광우 김광우 김광우 김광우 김광우 김광우
 정영선 한종윤 나오미1 여선교회 무명21

녹색꿈헌금

김향자 정다운 이한림 김명희 무명5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교회소식 ■

1. **환경선교주일** : 오늘은 감리교회가 정한 환경선교주일입니다.
2. **교육부 회의** : 오늘 예배 후 교회사무실에서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3. **주차장 이용** : 교회 오실 때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차를 가져오실 때는 공영주차장에 오전11시 이전까지 주차하시고, 주차권은 대당 1매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결혼** : 전병준 씨와 안수지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7일(토) 오후 1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5. **신앙실천** : 환경선교주일을 맞아 환경을 살리는 '녹색실천'을 한 가지씩 해봅시다. (자가용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휴지 말고 손수건 사용하기, 마트 말고 초록가게 가기 등)
 * 떡 대접 : 정복순 권사님

다음 주 설교 본문	눅 17:7-10
-------------------	-----------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예배위원	2부 김기석	장원호	박석희

	1부 영접위원	이선영	헌금위원	김민화
6월	2부 영접위원	곽권희 윤성종	한성건 정재기	이현순 김윤정
	2부 헌금위원		하현철 유경순	

오늘 식당 봉사	권미숙 조경자 최옥자 최미자 최광희 박분민 이경준 김정우		
다음주식당봉사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박경원 이선화 송동준 이재선		
오늘설거지봉사	4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5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4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김진우